

임실군, 생활체육관 건립 착착

59억원 투입 피구·탁구장 등 조성... 현재 공정률 72%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

임실군이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체육관(피구·탁구장) 건립 사업이 현재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 접어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59억원(국·도·군비 포함)을 투입해, 임실을 종합체육관 부지 일원에 연면적 약 1,302㎡ 규모의 단층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구조로 조성되는 체육시설로, 피구장과 탁구장, 부대 편의시설을 갖춘 다목적 체육 공간이다.

이 체육관은 피구와 탁구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72%(로, 기초·골조 등 주요 구조 공정은 이미 완료했다.

최근에는 실내 체육 마감재 시공, 전기·통신설비 배관 및 배선, 공조설비 및 급배수 위생 설비 설치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실내 체육 공간의 단열·흡음 성능 향상을 위한 고성능 마감재가 적



임실군이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이 현재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 접어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용되어, 향후 이용자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체육관이 준공되는 대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체육관은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각종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및 지역 체육대회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공사 마무리 단계까지 품질과 안전관리에 철저을 기해,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대 운영

남원시보건소,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심리적 위기 대응을 위한 이동형 심리지원 서비스인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탑승한 특수차량으로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가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마음을 보듬고 치

유하는 의미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학교, 사업장, 복지시설, 고평촌이 많은 읍·면 지역 및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시민 대상으로 자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번 마음안심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노인복지관 등과의 협업



을 통해 고위험군과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굴에 주력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심리적 위기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지역안전지수 향상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

순창군은 지난 22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열기남 순창부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군,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등 담당 부서 실무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안전지수 지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안전과 관련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 간 안전정도에 대한 등급을 계량화해 매년 연말에 공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2024년 순창군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각 분야별 지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향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위해지표'로 분류되는 사망자수와 발생 건수의 감축이 지수 개선의 핵심으로 강조됐으며, 분야별로 실질적인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보강,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을 제고 등이 포함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스포츠산업의 중심 순창군이 전국 주니어 유망주들이 총출동하는 '2025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소프트테니스 메카’ 순창군

27~31일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스포츠산업의 중심 순창군이 전국 주니어 유망주들이 총출동하는 '2025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문 체육 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이번 선발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며,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주최, 전북특별자치도소프트테니스협회 주관,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국내 선발전을 넘어, 한국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이끌 주니어 국가대표를 공식 선발하는 중요한 행사다.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하는 우수 주니어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2025 아시아 주니어 소프트웨어 선수권 대회 출전권이 걸려 있는 만큼 그 열기 또한 뜨거울 전망이다.

또한, 이번 선발전은 선수 개인의 국제 무대 진출은 물론, 실업팀 입단 및

진로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해, 주니어 선수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중대한 도전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참가 자격은 제46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웨어 대회 등 권위 있는 국내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우수 주니어 선수들에게만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유망주들이 순창에 모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약 200여 명의 선수단, 학부모, 지도자 등이 순창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숙박, 외식, 관광, 지역 상권 등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군수는 "전국 최고의 주니어 선수들이 순창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은 소프트웨어의 메카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프로미 119안전리더 캠프' 참가자 모집

남원시는 제2회 프로미 119안전리더 캠프 참가자를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과 소방청이 주최하고 전 북소방본부와 남원시가 주관하며, 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하는 행사는 전국 10~12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남원시와 임실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남원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의 응급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별 안전 체험과 피난, 응급처치 등 대응 방안 교육은 청소년들이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

는 중요한 기회로 벌써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행사는 △재난과 관련된 6가지 안전 체험 △산악사고, 캠핑 관련 안전 체험 △안전골든벨, 화재대피훈련 등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의 지리산 등 자연환경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가 프로미 119안전리더 캠프를 유치하게 되어 지역 홍보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바,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여성일자리 실무협의체 회의 가져

남원시는 지난 23일, 시청에서 여성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남원시 여성일자리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젠더전문가, 업체대표, 시 여성가족과, 기업정책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원시 여성친화도시(2025년 지정)와 연계된 일자리 사업과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을 제안하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일자리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강화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 여성청소년계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취약지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유해환경 지도·단속은 임실군 청소년상담센터, 임실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참여한 가운데 학교 주변 편의점·PC방·노래방 등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술·담배가 판매가 되지 않도록 신분증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가출 의심 청소년의 신고를 유도하는 등 사전 유해환경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최근 청소년 사이 급속히 유행하고 있는 불법 롬카페, 홀덤펍 등 신종 범죄가 우려되는 유원지 등 취약 장소에 대하여 사전 순찰을 실시했다.

류관송 임실경찰서장은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경찰은 물론 유관기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가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활동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범죄 또는 탈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